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정책브리핑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10. 11(수)	담당부서	전자전기과 통상협력총괄과
담당과장	이진광 과장(044-203-4340) 김기준 과장(044-203-5680)	담 당 자	방규철 사무관(044-203-4343) 천서현 사무관(044-203-5685)

정부·업계,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

- 10.11. 미국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 관련 민관 합동대책회의 개최 -

□ 정부는 10.11.(수) 13:00, 삼성·엘지(LG) 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와 **대책회의**(주재: 산업부 통상차관보)를 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 산업피해 판정 **동향을 공유**하고 **앞으로 대응방안**을 **집중 논의했다.**

※ 2017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(SG) 제소건 개요
- (제소자) 미국 월풀(Whirlpool)
- (대상품목) 대형가정용세탁기(24.4~32인치, 한국 기준 13~30kg) 및 주요 부품
- (진행절차) 5.31 조사 요청(제소) → 6.5 조사 개시 → 9.7 산업피해 공청회 → 10.5 산업피해 판정 → **10.19 구제조치 공청회 → 11.21 구제조치 판정 → 12.4 美대통령 앞 보고 → '18. 2월 미국 대통령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·시행**

<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요 >

▷ **일시/장소** : '17.10.11(수) 13:00~14:30, 대한상의 4층 중회의실 (서울 남대문)
▷ **참석자** :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(주재),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삼성전자, LG전자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, 관련 전문가 등

□ 10.5.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**산업피해 '긍정(affirmative)' 판정**을 내림에 따라, 긴급수입제한조치(**세이프가드**) **시행 가능성**이 높은 상황이다.

* 우리 기업은 국내 및 태국, 베트남 등 해외 생산공장에서도 對美 수출중 : '16년 글로벌 전체 10.6억불 (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은 1억불)

○ 다만, **한국 등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국**은 **산업피해 '부정(negative)'* 판정을 했다.**

* 한국산 세탁기가 산업피해의 상당한 원인(substantial cause)이 아님을 판정한 것

□ **업계**는 이번 산업피해 '긍정' 판정이 **수입량 제한, 관세부과**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**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**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**구제조치*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**임을 밝혔다.

* 구제조치 종류 : 쿼터, 쿼터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(TRQ), 관세 부과 등

□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구제조치 판정 과정에서 **한국산 제외를 지속 주장해 관철**시키는 한편,

○ 세탁기 수입제한 시 **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,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,** 월풀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**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**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**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**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.

○ 또한,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**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**하면서,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최상급 **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의 부당성**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.

○ 아울러, 미국 내 투자예정지 **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, 미국 내 유통업계와 현장 지원 활동을 강화**하는 등 **공청회 대응에 최선을** 다할 계획이다.

□ 정부는 **10.19.(목) 구제조치 공청회**(미국) **참석 및 정부 의견서 제출**을 통해 업계 **피해 최소화**를 위해 **지속적으로 노력***하기로 했다.

* 그동안 정부는 제소 동향파악, 서한 작성, 공청회 대응 등을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 수차례 개최(6.7, 8.11, 8.18, 8.31) 및 공청회 참석(9.7) 등 적극 대처

○ 아울러,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**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**과 미국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에 함께 **대응**하는 한편,

○ 필요시 **양자·다자**(세계무역기구(WTO) 세이프가드 위원회, 10.23) **기구**를 통해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우리의 **입장**과 **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.**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방규철 사무관(☎ 044-203-4343), 통상협력총괄과 천서현 사무관(☎ 044-203-56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